



보도 일시	2023. 1. 17.(화) 09:00	배포 일시	2023. 1. 16.(월)
담당 부서	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국제협력팀	책임자	팀 장 정호경 (044-201-6600)
		담당자	사무관 김도훈 (044-201-6606)

환경부-산업계 국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힘모은다

-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등 논의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1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엘더블유(LW) 컨벤션 센터에서 '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(이하 협의회)'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연다.
- 이날 협의회에는 환경부, 공공기관, 민간전문가 및 국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'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(NDC)' 중 국외 감축분(3,350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)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발굴, 기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.
-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우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.
- 베트남 등에서 사업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4건(7.2억 원)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매립가스 발전사업(27억 원)을 국제감축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, 올해는 사업예산을 100억 원으로 대폭 늘려 타당성 조사 및 시설 설치 지원사업 각각 4개를 선정할 계획이다.
-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로부터 국제감축사업 수행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는다.

- 특히, 지원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, 정부-기업간 감축실적 계약가격 기준 등 공모 추진 방향과 기업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.
 - 또한,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한다.
 - 아울러, 기존 청정개발체제(CDM) 전환사업 및 감축실적 활용방안, 국내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성 등 ‘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’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적·제도적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.
- 환경부는 정부·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소통 및 협력 창구로서 ‘국제 감축추진협의회’를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.
- 아울러 협의회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-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“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”라면서 “국제감축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붙임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계획. 끝.

□ 추진 목적

- 민관 상호 정보교류 및 논의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, 기업·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지원 체계 개선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23.1.17(화) 09:00~10:20, LW 컨벤션센터
- (참석자) 환경부, 공공기관, 국제감축 기업 등 21명
 - (환경부) 기후변화정책관,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
 - (공공기관) 한국환경공단, 수도권매립지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환경산업기술원
 - (전문가) 유승직 교수(숙명여대), 오채운 책임연구원(녹색기술센터), 이충국 센터장(한국기후변화연구원)
 - (기업) 11개 국제감축 수행기업 관계자
- *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, 한국동서발전, 한국남부발전, LX인터내셔널, 비엔지파트너스, 한국능률협회컨설팅, 한화에너지, 로엔컨설팅, 에코아, 기후변화센터, SK에코플랜트
- 안건 : ① COP27결과 및 환경분야 국제감축 추진방향
 ② 국제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제언
- 세부일정

시간		내 용	비고
09:00~09:05	5분	개회 및 인사말씀	환경부
09:05~09:30	25분	안건 발표	환경부·전문가
09:30~10:15	50분	전체 논의 및 질의	참석자
10:15~10:20	5분	마무리	환경부